

골프장개발과 환경영향평가

14. 골프장 정책 및 경제·사회적 영향

1. 골프장 관련 정책

1) 정부의 1단계 정책

- 골프장 규제 완화로 골프장 건설 확대 유도
 - 국무조정실(04), 골프장 공급부족 해소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규제개선
 - 문화관광부(04),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
 - 재정경제부(04), 골프장 설립 무제한 허용 방침 등
 -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일부 규제 완화
 - 전라남도, J 프로젝트
 - 전라북도, 새만금 국제관광도시 프로젝트
- 특별법 제정으로 골프장 건설 촉진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문화관광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에 관한 특별법

2) 정부의 2단계 정책

- 정부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7.7.30)

항목	내용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 국내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값 수준의 대중골프장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중심PF가 농지를 현물 출자해 건설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 짓도록 법인세, 지방세 감면, 진입도로 1개당 사업비 50% 국고 지원

<1~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골프장 관련 추진실적>

단계	구분	추진실적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6.12.11.)	관광·레저	○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 범위확대·규모제한 개선 ('07.10)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7.7.30)	관광·레저	○ 저렴한 골프장 공급 시범사업을 1~2개 추진, 사업추진기관(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성 검토 및 시범사업 계획 마련 ('07.11.9)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7.12.10)	관광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 개선 -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

3)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 6개월 내 골프장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 조정
-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경감('08.12월~'10.12월)과 입지제한 완화('10.8월) 등 스포츠 활성화 지원

〈연도별 골프장 관련 규제 개선 현황〉

도	규 제 명	개 선 내 용
1999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제한적 허용
2000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001~2003	골프장의 지역별 총량제한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임야면적의 3% 규제) → 폐지
2005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2006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코스길이 제한 → 폐지 회원제골프장 홀규모 제한 → 폐지
	골프장 세제	대중골프장 세제 인하 → 별도 합산 0.8%
2007	골프장시설 규제	-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총 규모 제한(5층) 폐지 -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 수질오염 총량제도시행지역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폐지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완화
2008	골프장시설 규제	- 수질기준 Ⅱa 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 폐지 - 시·도기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 초과금지 폐지 - 골프장 부지 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40%이상) 폐지
	골프장 세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경감 - 개별보유세→면제, 체육진흥기금→면제 - 보유세 및 취득세 →경감
2009	시설규제	- 골프장 외 체육시설 업소 숙박시설 제한 폐지 -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정 완화
	골프장 입지	- 10mm 이상 조정지 설치·운영시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밖 대중골프장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 Ⅱ 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 관리제 실시지역 대중골프장 입지허용
2010	회원모집규제	-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관련 규제 완화 * 신고전환업종에 대하여 총투자범위 내 회원모집 제한 규정 폐지
	골프장입지	-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밖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 Ⅱ 권역(팔당호 포함)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허용
2011	골프연습장 시설기준	- 퍼팅·피칭 연습용 코스의 경우 타석 설치 의무규정 완화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2012	등록체육시설 관련 보고사항 완화	시·도지사가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및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의 현황’을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분기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연 1회 보고하도록 완화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

4)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유도
- 카트·캐디 선택제 확대, 조성비 법인 요금 인하, 규제개선 등 골프대중화를 통한 골프산업 육성

구 분	주요 내용
○ 캐디, 카트 선택제 확대	· 공공 및 대중골프장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 유도('15년 말까지 100개소 이상, 이용료 4~5만원 인하)
○ 조성비법인 그린피 인하	· 조성비법인이 운영 중인 대중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를 12→10만원으로 인하 * 조성비법인 : 회원제골프장이 의무 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대중골프장 운영 법인. 현재 남여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 등 4개소 운영 중
○ 환불·정산 관련 약관 개정	· 골프장 입장 후 불가항력 사유로 경기 종료시 이용요금을 구간별→홀별 정산토록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유도

* 출처 : 기획재정부(2015.8.26), 2015년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

5) 시사점

- 정부의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급확대정책으로 인하여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골프장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골프장 건설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정될 경우 지속가능성(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골프장 공급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수 있음. 골프장이 계속 확대되어 골프장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에 시기상 어려울 것이고 시장경제에 맡겨 두기에는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불가피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임.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골프장 공급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골프장 관련 1단계 정책(가칭)과 2단계 정책은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1단계가 골프장 종류에 관계없이 확대하는 정책이라면, 2단계의 경우 대중골프장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
-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등 체육시설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최근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으로 이용요금 인하 등 골프 대중화 확산에 기여함

6) 1단계 정책에 대한 검토

(1) 골프장 정책의 쟁점

- 골프장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검토
 - 시도별 시군별 배분
 - 특정지역 집중 방안
- 골프장의 활용을 위한 토지공급 방안 검토
 - 농지 활용
 - 임야 활용
- 골프장 접대의 기업 손비처리 문제
 - 법인회원이 전체 이용객의 30-40% 차지
 - 접대비용 미처리시 골프장 부도 가능성
- 건설경기 차원의 골프장 접근
 - 단기적 경기진작 효과
 - 장기적인 국토환경 파괴 가능성
- 골프장의 인허가 간소화
 - 규제완화 차원의 접근
 - 지자체-중앙정부, 상위기관-하위기관 간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 개선 필요
- 골프장의 다양화
 - 지역경제 차원, 경기활성화 차원의 접근: 대규모화, 레저 단지화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대중골프장 확대, 소규모화, 농지와 병행 가능
 - 골프의 사회적 순기능과 영향/여가활동의 다양화, 고용증대, 국위선양 등
 - 골프의 사회적 역기능과 영향/고비용여가활동(귀족스포츠), 배타적·폐쇄적활동, 대규모토지이용, 환경문제 등
- 골프산업의 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와 소비유발효과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판매 및 고용 확대 등으로 내수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
 - 첫째, 생산유발효과 2.7배(산업연관표상)에 달하고 있음
 - 건설업 생산유발효과 : 1.990
 -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0.876
 - 둘째, 1개 골프장의 소비유발효과가 213억 원(113.8억 원×1.990)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

가 99.6억 원에 이르고 있음($113.8\text{억 원} \times 0.876$)

- 셋째, 18홀 1개 건설 시 연 3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
- 546억중 43%에 해당하는 236억 원이 노무비로 지출됨
- $(236\text{억} \times 1\text{개사}) / (85,900\text{원} \times 299\text{일} \times 3\text{년}) = 306\text{개}$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역파급효과의 측정은 매우 어려움. 보통 골프장이 인적이 드문 산지에 입지하므로 공급되는 설비 등 자재들은 전문업체에서 조달하고, 내부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므로 주변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적으며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골프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골프의 일반적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 영향(주민의식 등)에 대한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
- 골프장 구성에 따른 혜택 및 피해사례 조사분석

(2) 골프장 정책의 쟁점에 대한 검토

가. 건설 파급효과

○ 골프장 건설비용

- 골프장 건설비용은 시설수준 및 지형에 따라 280억 원—766억 원까지 매우 다양
- 18홀 기준 골프장 1개 공사비 546억 원(토지매입비 제외)
- 골프장 1개(18홀 기준, 대중제) 건설비용은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1홀당 평균 약 2,860백만 원 정도임
- 서학리조트의 경우 회원제(18홀) 450억 원, 대중제(9홀) 150억 원 소요

가) 긍정적 측면

- 250개의 골프장 추가 건설 시 27.2조 원의 건설경기 진작효과(대한상의)
- 105개의 골프장 건설 시 15.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국무조정실)
- 골프장 1개소의 연간운영수입은 약 102억 원 정도
- 연간이용객수 : 71,400명(골프장 1개소 평균, 2006년 입장객 기준, 18홀 환산)
- 객단가 : 비회원 200천원/회원제 2006년 지역별 평균(캐디피 80,000포함, 3.5명당)
- 회원제 골프장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100.1억 원
- 수도권 126.7억 원, 충청권 99.1억 원, 호남권 87.0억 원, 영남권 87.6억 원

- 1개 골프장의 평균 고용 인구는 165명(정규직 65명, 캐디 80명, 일용직 20명),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포함할 경우 200개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됨(대한상공회의소,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건의자료, 2004. 8)
- 골프장 250개 추가 건설 후 운영 시 연간 최소 4만 명 고용창출 효과(국무조정실)
- 신청 중인 105개의 골프장 건설 시 연 3만 명 고용창출 효과(국무조정실)
- 골프장 건설의 경우, 토목업체, 건축업체, 조경업체 등 수십 개의 하청과 재하청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전후방 산업효과를 고려할 경우 파급효과가 큼
- 골프장 1개(18홀) 건설비용을 약 50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효과	1,204.2억 원	50.0억 원	543.7억 원	1,399명

주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건설업 기준)

- 골프장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 골프장 1개소 연간운영수입 102억 원 기준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효과	234.1억 원	28.6억 원	98.6억 원	646명

주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음식점 및 숙박업 기준)

나) 부정적 측면

-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순히 건설비용만을 기준으로 추정함. 건설 후의 파급효과는?
- 골프장은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달리 최종소비시설로 경제적(생산적) 파급효과가 매우 낮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가구, 가전, 인테리어 등)의 영향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골프장은 높은 수익이 보장되어(2003년도 골프장 전국 평균 영업이익률이 23%) 개발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투자가 예상되므로 정책의 대상으로서 부적합함 시장경제원리 도모
- 골프장 회원권 가격의 지속적 상승(2004년 기준으로 10년간 17% 상승). 최근 골프장 회원권은 지역별로, 골프장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골프장건설과 운영에 따른 소비확대는 전혀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이 아니다. 엄청난 면적의 국토를 개발한 것에 비해 사회에 환원되는 발전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 공급과잉으로 진행될수록 개발업자들은 분양가가 높은 지역(예, 수도권)에 개발을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 분양가가 높고 영업이 수월한 수도권에 골프장 개발이 가속화될 경우 지방의 골프장 수요는 더욱 축소되고 회원권 가격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다) 쟁점에 대한 검토

- 실제 건설경기와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이 상기의 계산처럼 될 것인지?
- 골프장에서는 운영과 관리 차원에서 전문인이 필요하므로 지역에서의 고용창출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250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18홀의 필요면적이 35만평이라 가정하면 총 8,750만평의 토지가 골프장으로 묶이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인지 검토 필요
- => 골프장 개발보다 다른 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도모 가능성 등

- 셀프 캐디가 증가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할 때, 공급과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제 고용은 18홀 기준 100명 내외라고 평가할 수 있음

나. 관광수지 개선

가) 긍정적 측면

- 골프장 공급 확대로 골프장 이용료 인하, 해외여행 수요 감소, 여행수지적자 해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4년 해외 골프관광객은 200만 명, 지출액은 4조 원에 육박, 국내 골프장 연간 매출액이 3조 5,000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골프관광수지 적자는 심각한 수준¹⁾

나) 부정적 측면

- 골프장 수가 증가한다고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고 여행수지가 개선된다는 추정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불충분한 추론임. 해외 여행객들은 다목적 여행 목적, 기후, 골프 치는 여건(이용료, 부킹 등), 여름 휴가철 이용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임

다) 쟁점에 대한 검토

- 골프장이 증가한다고 관광수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자료가 아래 그림과 표에 있음. 연도별 골프관광객수는 2004년 49만 명, 2005년 57만 5천 명, 2006년 63만 5천 명(전년보다 10.5% 상승). 해외골프장 이용객수는 2004년 147만 명, 2005년 172만 5천 명, 2006년 190만 5천 명임

<골프장 이용객 및 골프장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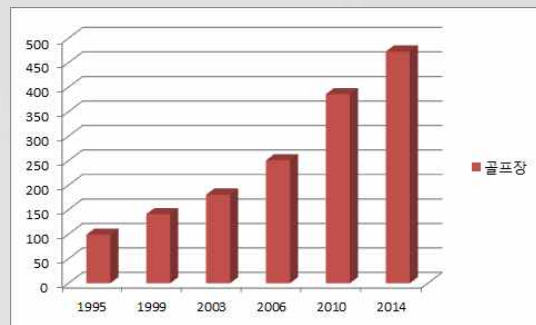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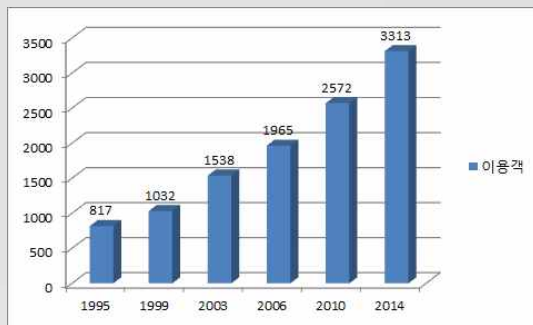
연도	이용객	골프장
1995년	817만 명	99 개
1999년	1032만 명	141 개
2003년	1538만 명	181 개
2006년	1965만 명	251 개
2010년	2572만 명	386개
2014년	3313만 명	473개

<해외 골프여행객 및 사용금액>

연도	여행객	사용액
2004년	490,000 명	9828억 원
2005년	575,000 명	1조941억 원
2006년	635,000 명	1조1402억 원

<연도별 골프장 이용객 및 골프장 수 변화 추이>

1) 2014년 해외 골프 관광비 4조원, 2015.02.06. 동아스포츠 기사에서 인용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골프장이 70개 증가하였음. 이는 홀당 골프인구(약 5,000명)를 감안할 때 630만 명/3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임. 그러나 동 기간에 427만 명 이용객수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이용객이 증가했고 골프장 수가 적기 때문에 해외골프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 연도별 골프지출액 (골프관광객수 × 1인당 관광지출액 × 1.5) 2004년 9,828억 원, 2005년 1조 941억 원, 2006년 1조 1,402억 원(전년보다 4.2% 상승)

다. 지역사회 파급효과

가) 긍정적 측면

- 골프관광객 유치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회원제 골프장 1개소당 직접세액 : 2001년 10억 7,400백만 원, 2005년 15억 3,800만원
- 2006년 매출액 1조 8,369억 원(회원제 골프장, 제주권 제외), 세금 7275.7억 원(39.6%)(직접세 4,466억 원(61.4%), 간접세 2,809.7억 원(39.6%))
- 평균매출액 기준(102억 원) 세금 : 40.3억 원(직접세 24.8억 원, 간접세 15.6억 원)

나) 부정적 측면

-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토지매입과정에서 각종 인·허가과정은 행정과 영향평가기관이 대행, 골프장건설은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 아·미용업에서부터 숙박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가 클럽하우스에서 직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골프장사업자협회가 출연한 연구, 훈련기관을 거쳐 양성한 전문인력을 배치, 골프장에 필요한 장비는 고급외제거나 그에 준하는 국내 재벌기업의 제품을 이용, 골프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 식재료 등은 유통회사를 이용하고 지역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음
- 골프장 공사는 전문성을 요하므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골프장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골프장은 전문건설업으로 일반토목사업과는 상이한 고용 인력이 필요하므로 지역 내부에서의 인력 사용에 제한적임

다) 쟁점에 대한 검토

- 지역주민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함
- 특별소비세 약 30%가 감해져도 지자체에 재정적인 기여분은 상당히 클 것임
- 직접세액이 2001년보다 2005년에 43.2% 상승했음. 회원제 골프장 매출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2%, 2005년 11.7%이며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약 30-80배임

라. 골프장 수, 이용객 등

가) 긍정적 측면

- 우리나라에는 국토의 면적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골프장 수가 부족하므로 규제완화를 통해 골프장의 추가건설이 필요함
- 전 세계 골프장 수는 미국 1만 5372개, 일본 2382개, 캐나다 2363개, 잉글랜드 2084개, 중국 473개 등 약 3만5천개소임(R&A·NGF, Golf around the world 2015)
- 국내 골프장 수는 지난 2001년의 154개소에서 2013년에는 465개소로 202% 늘어났으며,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1,290만 명에서 3,105만 명으로 141% 증가하였다. 미국은 14천명, 일본은 52천 명당 18홀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0천 명당 18홀을 갖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013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나) 부정적 측면

- 정부의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은 골프장의 입지, 건설,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시행되어 2004년 이후 골프장 공급이 가속화되어 왔음
- 연도별 골프장 현황: 2008, 2009년도 운영 중 골프장은 각각 311, 339개이며, 2013년 465개소에서 2014년 473개소로 1.7% 증가함(2004년 대비 58.9% 증가)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2개소 감소하였으나, 정규 대중골프장의 경우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골프장의 증가율이 높음

〈연도별 전국 골프장 및 이용객 현황〉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체육백서,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전국골프장현황 2015.1.1.기준

분	합 계		회 원 제		대 중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2001	154	12,902,526	110	10,046,055	44	2,856,471
2002	161	14,117,369	113	10,745,795	48	3,371,574
2003	175	15,115,577	122	11,454,576	53	3,661,001
2004	194	16,179,740	136	12,205,437	58	3,974,303
2005	224	17,766,976	147	12,741,012	77	5,025,964
2006	250	19,653,359	157	13,507,219	93	6,146,140
2007	277	22,343,079	175	14,923,213	102	7,419,866
2008	311	23,982,666	183	15,654,098	128	8,328,568
2009	339	25,908,986	193	16,940,101	146	8,968,885
2010	386	25,725,404	213	16,572,739	169	9,152,665
2011	416	26,904,953	225	16,784,857	191	10,120,096
2012	437	29,305,167	227	17,777,672	210	11,527,495
2013	465	31,057,645	228	17,547,634	232	13,510,011
2014	473	33,134,553	226	17,929,604	247	15,204,949

- 이경재(2004)는 국토인구지수를 고려한 적정 골프장수는 최대 200개인 것으로 추정함
- 일본의 경우 9홀 미만의 퍼블릭 골프장도 골프장 수에 포함된 반면, ~~현재~~ 한국 내의 골프장 수요치 및 건설예정 수에는 18홀 이상만 포함하고 골프인구 추정과 국토의 이용,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관련기관의 추정치보다 훨씬 적으며, 골프 수요가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보임
- 2012년 골프존이 TNS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에서 만26~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2012년 골프경험인구는 483만명(조사대상 성인 남녀의 13.7%)임. 모두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골프 인구는 302만명(골프 경험자 271만명, 재개 희망자 31만명)으로 추산 됨

다) 쟁점에 대한 검토

- 국내 골프장의 적정수준의 논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골프수요, 지역특성, 골프장 입지 가능지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산출이 필요함
-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의 골프장 이용객수는 약 2천6백만 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3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0%를 상회하는 숫자임. 즉, 인구 2명당 1명 이상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R&A(영국왕립골프협회)와 NGF(국제골프재단)가 전 세계 골프장 숫자를 공식 집계해 발표한 'Golf around the world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골프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요에 맞는 적절한 가격의 대중제 코스 공급이 부족하고 중과세로 인한 높은 이용료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골프장 운영과 신규 골프장 건설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입회금 반환과 경기불황을 제시함

마.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의 사회적 영향

가) 사회적 순기능

- 스포츠를 통한 레저활동으로 과거 특정 계층의 전유물에서 참여의 폭이 확대된 대중적 스포츠로 변화하고 있음
- 여성 및 젊은 층의 확대
- 자연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여가활동
- 최근 한국선수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으로 청소년에게 큰 희망을 제공하는 등 여가활동을 통한 제충전의 기회제공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전을 통한 성취요구의 달성 및 자아실현 추구
- 지역사회 발전

나) 사회적 역기능

- 고비용 스포츠로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 일반인들에게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비취짐으로써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한 연줄문화의 확대
- 대규모 토지를 소규모 인원만 이용하는데 따른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 약 1km²의 면적을 연간 약 7-8만 명만 이용
- 골프장 건설에는 대규모 토지의 개발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지역사회 파괴와 환경문제의 발생

7) 2단계 정책에 대한 검토

(1) 정책의 내용

가. 반값 수준

- 외국과 비교할 때 인구대비 골프장 수가 부족하므로(1/4) 골프장 공급 정책이 필요한데 이용객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반값 수준의 골프장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현재 대중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는 지역과 시설에 따라 아주 다르지만, 대개 주중 7만~20만원, 주말 10만~24만원(18홀 기준) 범위임. 서울 인근의 경우 주말에 20만원 안팎이지만 여기에 캐디피와 카트 이용료로 4만~5만원 정도가 더 들고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주말에 서울 인근에서 골프 한번 치려면 1인당 3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함

나. 농민 중심의 PF(Project financing)

-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를 관광·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활용하여 **농지의 활용도 제고와 농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계농지 정비지구제도를 개선
- ※한계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한계농지(경사율 15% 이상 또는 집단화된 2만㎡ 미만의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10만㎡ 이하의 지역
- 이와 관련,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보유한 농민이 현물 출자한 땅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면제하고 골프장 내 산림의 20% 이상(기준면적 초과시 25% 이상)을 원형보존 하는 규정도 폐지 또는 완화

다. 국가의 지원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 짓도록 법인세, 지방세 감면, 진입도로 1개당 사업비 50% 국고 지원
- 골프장 입지 및 시설규제 완화,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
- 샤워실과 카트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 운영시설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특별소비세 등 골프장 건설·이용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도 검토

(2) 정책의 목적

-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가능한 대중 골프장을 공급함

- 64만 5천명의 해외골프관광객이 1조 1,000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함. 그러나 실제로는 약 6천4백5십억 원이 골프에 들어간 비용으로 추정됨

- 10만 원 정도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저가형 골프장을 대거 공급
- 서울 인근에서는 가격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지방에 공급될 것으로 추정

(3) 정책의 문제점

- 세제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실질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국내 고급 소비계층이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임. 그 이유는 1단계 개선안에서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을 이용할 때 내는 각종 세금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나 특별소비세 등 현행 세제가 모두 그대로 유지됐고, 대중 골프장에 대한 세금도 변동이 없었음
- 골프장 특별소비세 감면에 대해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 입장은 **조세 형평성과 국민정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문제도 기존대로 불허 방침을 고수
-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해 현물 출자한 한계농지에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 자본+농지’ 개발안은 각 종 세금을 감면하여 저렴한 골프장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지만 경제적(수익모델), 사회적(농민갈등, 투기 등), 환경적(생태적으로 중요한 전이지역 훼손)문제뿐아니라 부처 간 합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기다리고 있음
- 정부 방안대로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반값 대중골프장과 경쟁관계가 될 지방 골프장의 도산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임
- 한계농지에 대중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실제로 이용료 인하효과가 가능할까? ‘반값 골프장’은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및 취득등록세 등이 면제에도 불구하고 조성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대중골프장과 별반 차이가 없는 300억 원(18홀 기준)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함. 이 공사비는 결국 이용자들에게 분담될 것임
- 지주와 건설회사의 참여가 쉽지 않음. 농민들이 현물로 출자할 유휴 농지는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주가 대부분 외지인이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제 활용 가능한 농지는 그리 많지 않고 골프장에 부지가 편입되지 않는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 한편, 큰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재력가가 있으면 상황이 다르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조달할 경우 7~8%에 달하는 금리를 부담(21-24억 원)해야 하므로 건설회사들의 참여가 결코 쉽지가 않음
- 수도권에 30만평 정도(18홀 골프장을 지을 면적) 되는 농지가 많지 않으며 농민이 소유한 것보다는 외지인 소유(소유자의 70% 정도)가 많아 골프장을 짓는다 하면 땅값 폭등은 당연한

우려

- 세금을 인하하고 반값 골프장을 공급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 지자체는 골프장 유치에 흥미를 잃게 될 것임
- 반값 골프장 건설로 들어간 시공비와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임. 그래서 골프장과 콘도를 함께 건설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

(4) 값싸게 운영되는 외국의 대중골프장 사례²⁾

- 미국의 1만 6천개의 골프장 중 70%가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평지에 조성되어 있음. 미국 대중골프장에서는 보통 캐디가 없고, 클럽하우스는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골프용품을 살 수 있는 매장, 창고 같은 락커룸이 전부임. 골프코스에 그늘집이 없음
- LA시의 윌슨 골프장(Wilson Municipal Golf Course, 36홀)의 입장료는 주중에 24달러, 주말에 31달러이며 55세 이상 시니어는 주중 15달러임. 캐디는 없고, 전동카트 이용료가 24달러이고, 수동카트 이용 가능.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과 자판기가 3~4군데 있음
- LA 근교의 모레노 밸리 랜치 골프장(Moreno Valley Ranch Golf Club, 27홀)은 황량한 사막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킨 골프장임. 입장료는 평일에 45달러, 주말에 60달러이며, 골프카트는 2인승으로 GPS가 부착되어 있고 사용료는 입장료에 포함됨
- 더씨랜치 골프장(The Sea Ranch Golf Links, 18홀)은 바닷가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입장료는 평일에 50달러, 주말에 70달러임. 이와 비교하여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인 페블비치 골프장의 입장료는 무려 475달러에 달하고 있음
- 일본의 대중골프장들은 골프인구가 급감하고 골프장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장료가 크게 낮아졌고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디가 없는 셀프플레이(self play)가 확산되고 있음. 전체 골퍼들 중 셀프플레이하는 비중은 2001년 27.6%에서 2005년에는 52.6%로 크게 높아졌음
- 지바(千葉)현 이치하라(市原)시에 위치한 이시하라 대중골프장(27홀)은 캐디가 없는 셀프플레이의 주중 입장료(7~9월 기준)는 8,500엔, 주말 1만 4,500엔이지만 캐디를 동반할 경우의 입장료는 주중 1만 1,500엔, 주말 1만 7,500엔으로 셀프플레이보다 3,000엔 비쌈
- 홋카이도 아부타군(田郡)에 있는 니세코 히가시아마 프린스호텔 골프장(18홀)은 스키장과 호텔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리조트 골프장으로 승용카트피를 포함한 입장료(6~9월 기준)는 주중 7천엔, 주말 8,500엔임
- 이바라키현 코바시(古河市)에 있는 코바 골프장(18홀)은 승용카트를 타고 페어웨이에 진입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으로 승용카트를 탈 경우 주중 입장료는 6천 엔, 주말에 8천 엔이고 수동

2) 값싸게 운영되는 선진국의 대중골프장들-미국, 일본 대중골프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 골프 2007-8-17 뉴스)에서 인용

카트를 끌고 다닐 경우에는 1천 엔 할인됨

- 도쿄도 아키시마시(昭島市)에 위치한 쇼와노모리 골프장(18홀)은 도심형 대중골프장이며 입장료는 주중 1만 2천엔, 주말 1만 6,500엔으로 비쌌. 세 종류의 연간 회원도 모집하는데 골드회원의 입회금은 6만 3천 엔이고 입장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음
- 이처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있는 대중골프장들은 조성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고 세금도 적기 때문에 입장료를 싸게 받더라도 운영될 수 있고 골퍼들도 큰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음. 운영시에도 캐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카트도 2인승 카트를 타고 플레이하거나 걷기 위해 수동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음

(5) 시사점

- 정부의 골프장 확대를 위한 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기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이후에도 골프장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의 1단계, 2단계 정책으로 골프장 공급은 이전 보다 빠르게 확대되었고, 골프장 규제 완화, 대중화 정책으로 골프장 과잉공급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될 가능성이 있음
- 골프장 건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초과수요가 흡수되면 골프장 사이의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할 것임=>사업타당성 판단을 위해 경제성, 사회적,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골프장 이용요금의 구성을 분석하면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되어 이용요금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불확실함
- 현재 골프장 이용요금에는 각종 세금 및 골프장 관리·유지비를 제외하고 약 20%를 상회하는 이윤을 포함하고 있음
- 골프장이 건설되어 경쟁에 의해 요금이 낮아질 수 있는 범위는 대략 20~25% 수준
-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약 20만원(비회원 기준, 캐디 및 임대료 제외)일 경우 단기적으로 이용료는 15만원 아래로 떨어지기 어려움
- 여기에 종부세는 고려되지 않았음
- 입지 및 타당성분석, 수익 가능성, 경쟁타피, 골프대중화, 생태계 고려한 개발
- 1라운드시 골퍼 1인이 내는 세금은 주중 평균 그린피 14만5천 원의 40%인 58,000원(회원제 기준)임. 이는 일본의 세배에 해당되는 금액임

가. 골프장 입장료

- 입장료는 골프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A 골프장에 대해 아래의 가정을 할 경우 연간 최대 이용료 수입은 97.75억 원(전체 매출액의 약 67%)임

[가정]

- 회원의 주중(월-금) 및 주말(토, 일) 이용료: 각각 50,000원, 60,000원
- 비회원의 주중(월-금) 및 주말(토, 일) 이용료: 각각 160,000원, 190,000원
- 1년 운영 일: 350일(50주)
- 팀당 회원 1명, 비회원 3명

나. 세금부과의 불합리성

-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를 적용해 부과함. 예를 들면, 2007년 총 재산세 및 종부세가 29억 원, 2008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3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됨. 이 경우 세금 7억 원을 더 내게 되는데, 현재 영업에서 7억 원의 추가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입장료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음
- 골프장은 크게 체육시설 용지와 원형보존 용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 용지(코스, 그린, 페어웨이, 시설물 용지 등)는 골프장이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되어 4%의 재산세 및 공시지가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형보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방지 목적으로 4.8%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원형보존지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의 규정에 의해 골프장 허가 요청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개발 불가능지(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땅)이므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에 비해 같은 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은 별도합산을 적용하고, 스키장의 경우도 별도합산을 적용하여 종부세가 거의 없음

※ 국내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회원제와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이익창출에 있어서는 회원제와 다를 것이 없음. 세금이 적으므로 적절한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즉, 이용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것은 영업목적상 어려움. 진정한 의미의 대중골프장은 공공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여타 체육시설처럼 일반 대중에게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함

다. 지역경제에 기여분

- 고용인원은 정규직으로 고정 직원(관리, 운영, 경비, 청소, 프런트 등)과 식당 등 외주에 의한 고용 등 100여명과 캐디 약 100여명으로 구성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규직의 인건비에 해당됨
- 일용직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 해결하는데 주로 지역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8홀 기준 보통 하루 평균 10-15명을 고용하고 성수기 약 40명 정도 고용할 때, 연 약 3천~4천명 지역에서 일용직 고용효과가 있고 일당 5만원을 계산할 때 1억5천~2억 원의 지역경제 기여분이 발생함

- 골퍼들(하루 평균 200명 가정) 중 50-60%는 골프치고 골프장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식사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80-100명) 중 골프장 외부에서 식사하는 비율을 95%정도(76-95명) 추정하면, 1인 20,000원 식사비를 가정할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152만-190만 원/일이며 1년 350일로 환산하면 5.32억-6.65억 원/년 정도 됨
- 지역 사회와 관계는 대부분 잘 유지하고 있고 오래된 골프장일수록 민원이 적은 것으로 알려짐. 민원방지의 대책으로 기부금, 지원, 홍보 행사, 교육, 견학 등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긍정적 경제·사회적 효과

- 골프장 조성도 하나의 투자사업으로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음
 - 생산효과와 고용효과 및 세수증대효과
 - 골프장 약 20개의 총생산효과는 공업단지(지방, 농공단지) 1개 조성효과와 중소기업 약 27개 육성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대한상공회의소)
 - 그러나 고용측면에서는 약 3배의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공업단지 조성 및 운영여건은 어려운 반면 골프장 조성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투자의 향은 높은 편임
 -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골프장 조성을 새로운 투자기회로 간주하게 됨
- 또한 골프장 조성은 관광단지 조성에 필수적 사업이며, 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음
 - 따라서 골프장 조성 자체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필요한 지역에서는 타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유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골프장 조성은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측면의 필요성이 있음
- 조성비용 및 인건비의 과다, 높은 운영비용 및 기타 불리한 여건으로 타 국가와의 경쟁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봄

2. 골프장과 갈등

- 골프장건설에 대한 갈등은 크게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작게는 사업지역에서 발생되어 왔다. 이해당사자들 각자의 이익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송과 재판까지 진행되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다. 갈등의 이슈는 주로 보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환경, 문화, 종교 등이 주요 이슈이다.

1) 골프장건설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 골프는 이제 더 이상 부유층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정인들만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사회적 거부감이 컸으나 지금은 골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가장 큰 이해당사자로서 각자의 입장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 건설로 지방세 수입 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과 용수 문제 그리고 토사 유출 및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적은 보상비를 받고 고향에서 쫓겨나야 하는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주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 농민 소외감 등 공동체 파괴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 골프장 건설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개발업자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마찰로 우리사회 갈등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파괴의 개선비용과 사회적 부담은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성숙된 자세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주민은 이를 토대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갈등이 사회갈등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국내 골프산업의 향후 전망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의 ‘국내 골프장 산업 현황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골프 산업 이슈 및 전망으로 다음 4개를 제시함
 - 입회금 반환 문제로 골프장 도산 가능성
 - 조세특례제한법 종료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 수익성 악화 전망
 - 골프장 M&A로 대형화·체인화 전망
 - 골프장 이용인구 줄어들 반면 스크린 골프의 수요 지속 전망

1) 공급자 시장 ⇒ 수요자 시장

- 골프시장이 현재의 供給者(사업자) 중심시장에서 앞으로는 需要者(고객) 중심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입장료·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골프장의 입장료도골프장의 수급 균형 내지는 공급과잉 시대로 접어들면서, 코스 및 서비스 수준이 낮은 저급 골프장들은 골퍼들을 유치하기 위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이미 제주지역은 공급과잉시대가 도래했고 점차 호남권·영남권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지만, 수도권은 수도권의 골프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골프장의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임

2) 향후 골프장 이용객 수 전망

- 2000년 이후 골프장 이용객 수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골프 붐이 진정되면서 골프장 이용객 수는 감소할 전망

3)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 감소 요인

- 중산층 붐괴로 추가적인 신규 골퍼들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높은 이용료도 골퍼인구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높은 이용료로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이 줄고, 노년층의 이탈이 확대될 전망
- 원 가치 상승으로 해외원정골퍼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수 감소에 일조할 것임
- 다만 베이비 붐 세대들의 정년퇴직으로 골프장 이용객수 감소를 다소 억제할 것으로 기대됨³⁴

4) 시사점 3)

-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지역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제2영동 고속도로 건설로 강원지역의 골프장 수 증가 예상, 이로 인한 과잉 공급 우려
- 다른 지역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영남권 지역의 경우 골프장 수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도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골프장 수급 악화와 인구에 따라 골프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급격한 침체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골프장 회원권 가격 모니터링 필요
-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골프장 공급확대에 따른 투자가치 하락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골프장 M&A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 포착
- 재무구조가 우수한 대기업이 골프장 M&A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인수합병 거래 지원 등으로 수익 확대 기회

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국내 골프장 산업 현황 점검 및 향후 전망'